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0차	일자	2021.04.26. 18:30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참고자료: 1학기 예산자치제 지원서류 합본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0	0	0	0	0	0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0	0	0	X	0	0	11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농촌연대활동 대체행사 진행 예정이라서 이번주 주말중으로 직접 사과대 관할 농촌으로 방문 예정.
약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인문대학	공간문제 TF 5월에 출범해서 10월 하반기 입학대회 전까지 단계별 계획 가지고 움직일 예정. 자세한 건 학교측과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 예정.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특이사항 없음.
동아리연합회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20학번 대상 푸양 힐링키트 발송 완료
	1분기 간담/26결과보고 업로드
	교양과목 온라인강의 8주차 피드백 전달, 9주차 진행 예정
	학내 노동자 연대 영상 촬영 중
	중간고사 응원 이벤트 진행 완료(4/26)
	학문 연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모집 마감
	푸양 2차 푸레젠트 굿즈 신청 마감
산하위원회	봄 축제 준비 중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이벤트 진행 완료(4/20)

총: 질의사항 있으신지?

인문.정: 약간 별개인데 중운위 입장문은 아직 작성이 안되었는지? 그때 19일까지 쓰시기로 한걸로 기억하는데 안올라와서 혹시 여쭙본다.

총: 빠르게 작성을 하고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다. 제가 입장문을 쓸게 너무 많아서 좀 미뤄졌는데 최대한 빠르게 작성을 하고 중운위분들께 피드백 받도록 하겠다. 네 없으신걸로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3 논의안건

1. 예산자치제 지원 서류 검토

- 러버쉴, 매치포인트, DOT, 미식축구부, 레볼, 방구석콘서트TFT, 아마농구청룡, 마케팅연구회, 흑술, 흑룡, 댄소시오

총: 이번 2021학년도 1학기 예산자치제에는 11개의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 댄소시오라는 사회학과 댄스 모임은 지원기한이 끝이 난 후에 지원을 하셨다. 이거 참고하셔서 서류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러버쉴이라는 체육교육과 동아리이다. 단체 소개서와 활동계획서 그리고 지출예산안, 예산자치제 신청내역 및 금액을 바탕으로 지원을 반려키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다. 네 우선 총 지원 금액은 예산자치제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237,009원이다. 참고하시고 러버쉴에 대한 피드백 받도록 하겠다. 대표자분들께서는 활동계획서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주시고 지출예산안에서 자료가 부족하다, 미비하다, 더 많은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더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 있는데 러버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그 혹시 예산자치제에 지금 총 금액이 8,230,000이라고 했는데 혹시 한 단체 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점 같은 것이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쭙는다.

총: 네 20%이고 8,237,009원의 20%를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8,237,009 \times 0.2$ 를 하면 한 단체 당 1,647,401원을 지원할 수 있다. 러버쉴 자료에 대한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혹시 전체적으로 질의가 있는데 지금 예산자치제 신청서를 보면 대회참가비를 요청한 단체들이 많은데 작년이나 전년도에 이런 예산자치제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대회참가비에 대한 타 회장단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해당논의 했으면 좋겠다.

총: 네 우선 작년 중운위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해드리자면 우선 대회가 확정이 되었고 확실히 진행할 것 같은 행사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 드렸고, 축구공 구매라든지 농구공, 배드민턴 족 이런 것들을 기자재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회준비 물품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난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기자재 구매는 허용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경경.정: 네 감사하다.

총: 뭐 제 생각을 여쭙보신 건지 마지막에?

경경.정: 아니다. 전체적으로 대회참가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본 것이다.

총: 우선 저도 각 단체별로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한 단체씩 의견을 받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러버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란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럴수가 있을 수 있다. 러버쉴 지출 예산안을 보시면 배드민턴장 대관비가 있고 챔피언십 대회 참가비가 있는데 대관이 너무 많다, 대회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준비를 하냐와 더불어서 예산자치제를 신청하는데 금액

이 너무 크다든지 이런 자유로운 모든 의견들을 내주실 수 있으니 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저는 일단 만약 모든 단체에 지원금을 다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일단 KSF 클럽 챔피언십 대회에 중앙대학교를 이름으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자치나 학생사회에 연관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책정된 비용이 모두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준비하는 명목 외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예술.정: 예술대도 지원에 딱히 걸리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혹시 인문대학 질의가 있는데 혹시 이 대회가 현재 개최가 확정된 것인지?

총: 일부 단체는 작년 대회를 기준으로 작성하신 단체도 있고 2021년 곧 진행이 될 예정인 대회를 기준으로 작성하신 단체도 있다. 따라서 이견 단체별로 논의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다.

부총: 작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논의 중에는 예산을 일단 지원한 후에 대회가 취소 되면 예산을 회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총: 예산규정 제 11조 2항을 보시면 본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된 지원금은 반환받으며 예산자치제의 예산으로 사용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대회 예정인 내역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대회가 취소가 된다면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다 고려하고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일단 188,000원을 지원하되 대회가 개최하지 않으면 10만원은 다시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내용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 해당내용 동의하고 러버쉴에 추가적인 질의 없다.

자연.비: 자연대 해당내용에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더 논의하실 상황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러버쉴은 188,000원을 지원 금액으로 작성해 주셨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러버쉴에 예산자치제 신청 금액인 188,000원을 지원 한다.'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채팅창을 통해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사과대 의견 있는데 지금 전 단위 지원금액을 다 액수를 더해보니까 총 5,720,000원이라서 8,200,000원에서 5,720,000원을 한 번에 지출한다고 하면 좀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할 것 같아서 혹시 모든 단위의 예산자치 신청서를 다 검토하고 마지막에 한 번에 의결하는 것은 어떨지 궁금하다.

총: 각 단체의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 단체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모든 단체에 대한 의견을 받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의결을 진행하자는 말씀이신지?

사과.정: 네 맞다.

총: 저는 일단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하고 단체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대표자분들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같은 경우에도 예산자치제 총 비용 20%내에서 각 단위가 필요한 금액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금처럼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사과.정: 네 알겠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 네 좋은 의견 감사하다. 그러면 러버쉴에 대한 의결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분들 의사표현해 주시고 반대하거나 기권하시는 단위도 채팅창을 통해 발언해주시기 바란다. 참석단위 11단위 중 찬성 11단위 이므로

해당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알린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동아리 매치포인트라는 단체에 대한 의견 받도록 하겠

다.

통공.정: 공대 회장이다.

총: 네

통공.정: 아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아까 사과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걸 들었는데 저희가 의결을 진행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이제 회의를 하다가 어 앞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돌아가 보면 이미 의결이 진행된 후니까 뭐가 저도 그러한 상황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의결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라기 보다는 혹시나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뒤에서 발생했을 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씩 검토해보고 한 번에 따로따로 의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린다.

총: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서 지난 의결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진행할 수 없으니 모든 단체에 대한 서류를 검토를 하고 한 번에 의결을 진행하자는 공대 회장님의 의견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해당 단체에 대한 의결이 진행이 되기 전에 예산자치제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파악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원 서류도 일전에 중운위 공지방을 통해서 배포를 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한 단체씩 의결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했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각 단위에서 해당 자료를 다 검토하고 왔겠지만 다른 단위에서 검토한 방향과 각 단위에서 검토한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앞선 의결에서 방금 통일공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뒤에서 다른 서류들을 피드백을 할 때 미처 각 단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른 단위에서 이야기 했을 경우 앞에 의결을 통해서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사실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한 번에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아까 저희의 의견이었다.

총: 뭐 어떻게 진행하든지 간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 여쭙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예술.정: 예술대 사과대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사과대 의견에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도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논의를 하면서 기준의 잣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 검토를 하고 의결을 진행하자고 라고 말씀해주셨다. 방금 러버슬에 대한 의결은 없던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의결 진행하겠다. 사과대 회장단 괜찮으신지? 네 우선 러버슬에 대한 의결은 철회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해주신 취지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러버슬에 대한 추가의견은 없으신 걸로 하고 매치포인트에 대한 의견 받도록 하겠다.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양식 자체가 19년도라고 기재가 돼있다. 이게 첫 번째 오기재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출예산안과 예산자치제 금액을 보시면 최종 신청 금액은 300,000인데 어떠한 명목으로 300,000원을 요구를 하는지 지출 예산안을 보고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어떨것느냐 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내용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그러면 매치포인트에 대한 자료는 추가요청 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음으로는 DOT라는 단체이다. 네

DOT 단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문제가 없다면 없다고 말씀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과대는 DOT 해당 활동계획서 자료를 보고 생각이 든 것은 연습실 비용을 두가지 종류로 청구를 하셨는데 하나는 팀별 연습비용이고 하나는 개인별 연습비용을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자치제 명목 하에서 개인별 연습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지 조금 의문점이 들었다.

총: 네 사과대 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보통 이렇게 팀별 연습 지원까지는 괜찮은데 개인 연습은 단체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팀별연습실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하실 수 있다. 참고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저는 댄스소모임이기 때문에 팀별연습과 개인연습이 확실히 구분이 되지만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생각해보면 연습의 양상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단체의 활동에 지원을 한다는 원칙에 훼손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과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개인 연습비용을 제외한 팀별 연습비용만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경경.정: 경경대도 개인 연습비용을 제외한 팀별 연습비용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공.부: 공대도 개인 연습비용 제외하고 팀별 연습비용만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사범.부: 사범대도 위 의견에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도 팀별 연습비용만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는 개인 연습비용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 내겠다.

약학.정: 약학대학도 예술대학이랑 비슷하다.

총: 네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씀해주신 내용은 차후 의결을 통해서 의견 받도록 하겠다. 네 다음으로 중앙동아리 미식축구부에 대한 자료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제가 좀 의견을 드리자면 지출예산안 항목을 보시면 라인테이프 및 운영물품, 응급처치 및 기타약품비, 물, 음료, 간식비 이것이 과연 대회를 준비하는데에 꼭 필요한 물품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라인테이프 및 운영물품, 응급처치 및 기타약품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쪼잔해 보이는데 물, 음료, 간식비 같은 경우는 약간 예산자치제의 목적과 상반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회 준비와 이것은 좀 약간 별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총: 라인 테이프 및 운영물품, 응급처치 및 기타약품비 이러한 내용도 작년 중운위에서 논의거리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물품을 기자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대회 준비에 꼭 필요한 물품이냐 각자 의견이 좀 다를 것 같다. 그래서 대표자분들의 의견 꼭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네 부총이다.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및 기타약품 구매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인테이프 및 운영물품도 마찬가지로이다.

자연.비: 자연대도 부총학생회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응급처치 및 기타약품비랑 라인테이프 및 운영물품을 인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정확히 어떤 물품과 어떤 세부항목을 구매할 예정인지를 밝히면 된다고 생각한다.

예술.정: 예술대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이다. 공대는 라인테이프랑 운영물품, 응급처치 및 기타약품 다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대회 나갈 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들은 일회성을 가지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상이다.

부총: 부총이다. 이게 일회성 비용이냐 아니면 비품으로 해당 단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애기일 수 있지만 해당 단체에 라인테이프 및 운영물품, 응급처치 및 기타약품의 재고가 없는지 혹은 재고가 있음에도 신규신청을 하는지를 함께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총: 네 제가 작년에도 논의거리가 된 이유가 사실 이 예산자치제 지원의 힘을 빌려 일부러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다 많이 기재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된 걸로 기억을 한다. 이번 예산자치제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우선 다수의 대표자들께서 라인테이프 및 운영물품, 응급처치 및 기타약품비에 대한 자세한 예산 내역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주시는 것 같다. 그럼 해당 동아리에 대한 지원 여부 의결은 좀 보류를 하고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모두가 만족하는 의결이 진행되지 않는지? 네 알겠다. 혹시 미식축구부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다음 단체인 정치국제학과 소모임 레볼이라는 단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합주실, 연습실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하셨고 예산자치제 신청 금액은 100,000이다. 대표자분들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회과학대학 방구석콘서트가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이 콘서트를 대비하기 위한 단체, 많은 단체께서 지원해주셨다. 여담이다.

경경.정: 저 질의가 있는데 합주실이 있고 연습실이 있는데 아까 이전처럼 댄스부처럼 이 연습실이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거라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해당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합주랑 연습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총: 그 합주랑 연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주실과 연습실 사용 목적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바로 의결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모든 대표자분들이 만족을 하시려면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라는 의견 낸다.

경경.정: 합주는 같이 하는 게 합주실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연습실만 해당 내용 자료 요청 하면 될 것 같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통공.부: 공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학도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알겠다. 그러면 연습실 사용 목적, 합주실까지 모두 함께 포함해서 추가자료 요청하도록 하겠다. 네 다음으로 단과대 학생회 내 TF의 주관인 방구석콘서트 TFT라는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셨다. 근데 제가 사과대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쭙보는 것인데 학생회의 학생회비가 아닌 예산자치제의 지원을 받는 이유가 있는 지? 단지 궁금해서 이것이 지원여부의 심사기준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쭙보는 것이다.

사과.정: 네 저희가 애초에 해당 행사를 기획을 할 때 예산자치제를 고려를 하고 기획했던 행사이다. 학생회비 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만한 뭔가 크기 그런 규모의 행사라기보다는 예산자치제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에 예산자치제를 고려하고 진행하게 된 행사이다.

총: 우선 단체소개서에 질문 항목을 보시면 학교 및 학생회의 공식적인 재정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란이 있다. 이 조사를 받는 이유는 혹시나 예산자치제의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19년도에는 학생회랑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 예산자치제에 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19년도 말에 예산자치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나 학생회에서 공식적인 재정지원을 받아도

예산자치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다. 그런데 혹여나 조금 우려스러운 게 단과대 학생회의 학생회비는 이미 1,2,3,4,5차 학생회비로부터 배분을 받았는데 이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학우분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하고 사과대 학생회장단이 있지만 좀 자유롭게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네 부총이다. 이 행사 자체에는 사과대의 일체 재정지원이 없는지?

사과:정: 네 제가 답하는 게 편하신지? 그럼 답변을 해보자면 예산자치제를 고려하고 진행하기로 한 사업이라서 예산자치제가 만약에 저희가 부결이 돼서 예산자치제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학생회비의 고려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학생회비 재정지원 계획이 없긴 하다.

총: 그러면 학교로부터 재정을 받지 않고 계시고 방구석콘서트 진행 금액이 865,000원 이게 전부라는 말씀이신지?

사과:정: 네 맞다.

예술:정: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원래 대면일 때도 이런 밴드나 이런 소모임 등의 단과대 차원에서 금액같은 걸 지원해주지 않았는지?

사과:부: 단과대 차원에서 밴드나 소모임 지원이 없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되는지?

예술:정: 그러니까 대면 당시에도 이게 계속 운영이 되었을 텐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단과대 학생회비 차원에서 밴드나 소모임에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러셨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사과:정: 네 사회과학대학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재되어있는 방구석콘서트라는 행사가 학과/부의 소모임과 함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행사이고 해당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과/부 소모임이 전혀 활동하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처음 있는 행사이다. 그리고 사실 학과/부 소모임이고 단과대 소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과대 차원에서 해당 소모임들을 지원하는 행사는 이 전에 한 적이 없다.

부총: 부총이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여기 사과대 회장단이 있어서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긴 하나 일단 제출된 자료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과대 학생자치 운영에 관한 사안은 기타 안건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사과:정: 그리고 추가로 저도 같은 의견인데 덧붙이자면 저희가 원래 대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료를 제출해주신 타 소모임, 동아리 예산자치제를 신청하신 소모임,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지원서 제출해주신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계속 대답을 하면 중운위분들이 논의하는데 조금 눈치 보이실 것 같아서 편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경경:정: 이걸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게 여기 단체 성격에 단과대 학생회 내 TFT라 되어 있어서 아예 방구석TFT로 해서 독립적으로 나온 단체면 예산자치제를 지원해도 될 것 같지만 이게 단과대 학생회 내 TFT라는게 사과대 학생회에서 어쨌든 진행을 하게 되는건데 이걸 예산자치제의 돈으로 쓰는게 맞나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관련해서 조금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부총이고 일단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과대 학생회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경경대에서 지적해주신 도의적인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칙은 훼손이 되지 않으나 예산의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일단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과대 축제 축소판으로 보여지는 단과대 행사인데 이를 단과대 학생회비로 안하고 예산자치제로 하려는 것 자체가 좀 방

금 부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뭔가 좋게 보이지만은 않아서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구석TFT랑 다른 예산자치제 신청해주신 팀들이랑은 성격적으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으로 있다.

총: 네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통해 의사표현 받도록 하겠다.

부총: 네 추가의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전체 예산을 예산자치제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과대 학생회 행사이기 때문에 사과대 학생회비로 지출을 하는데 사과대 학생회비로 지출하기 부담이 되거나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모아서 예산자치제로 신청이 된다면 지금과 판단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을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추가자료 요청이나 자료 수정요청을 통해서 의결 전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렇다.

총: 네 사과대 회장님이 계셔서 논의 양상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는 지원을 해준 이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중운위 내에서 한 번 더 추가자료가 아니라 이거는 추가자료랑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의결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저도 해당이 되겠다. 자금 지적에 수용을 하고 제 사견이 많이 개입된 것 같다. 그래서 판단에 반영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안하셔도 될 것 같다.

경경: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자치제가 학생회비같은걸 지원을 못받는 단체들을 위한 제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과대 학생회 내 TFT로 진행을 하게되면 뭔가 중복된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사례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 후에도 관련해서 돈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총: 네 추가의견 더 있으신지? 추가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체육교육과 동아리 아마농구청룡에 대한 자료검토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우선 제가 의견을 좀 남기자면 지금 자료가 활동목적 및 계획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활동목적 및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2021년도 계획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추가요청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총학생회장의 의견 남긴다. 다른 분들도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 근데 혹시 저 하나 말씀드려도 되는지?

총: 네

인문: 잘 들리시는지?

총: 좀 끊긴다.

인문: 지금 잘 들리시는지? 제가 계속 끊겨서.

총: 지금은 괜찮다.

인문: 아 다행이다. 사실 저는 아까부터 좀 고민이었던게 양식같은 것도 저희가 처음에 2021년도용으로 다 공표를 했다. 그런데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면 2020년에 대한 내용들이 쪽 담겨져 있고 2020년 양식으로 하는데 과연 그 양식에 맞춰서 다시 제출하는 게 저는 의문이다. 애초에 처음에 공표된 대로 2021년 활동계획서에 맞춰서 저는 작성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꼭 저희가 자료를 재요청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 다른 동아리는 전부 2021년 양식과 활동계획서에 맞춰서 제출했다. 근데 이 동아리만 따로 해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

총: 네 인문대 회장님께서도 아까도 2019년에 작성된 단체 말씀해주신 것 맞으신지? 네 그러한 문제점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범: 사범대 질의 있는데 만약에 그 대회 일정이 미정되어있거나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2020년 자료를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총: 부총이고 방금 인문대와 사범대 의견을 들으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매치포인트 동아리같이 단순히 행사 일시를 오기재하는 것은 어쨌든 올해 참여를 예상으로 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계획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자료 요청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 이번 경우같은 경우는 단순히 21년도에 행사진행여부가 불투명해서 작년도 자료를 참고 했다가 보다는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신청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준비계획에 맞게 예산을 새로 써야하는 문제인 것 같다 이 동아리는. 그래서 후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영역에 얼마만큼 예산을 써서 대회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든다.

경경.정: 경경대같은 경우도 지출예산안에는 2020년이 아닌 2021년으로 기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해당 신청서는 기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기각을 한다는 것이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가자료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경경.정: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추가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총: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의결을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추가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부총이다. 추가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 지금 더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참가비 지원을 요청하는 서류이다. 참가비는 올해 참가비가 얼마나 책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도 예산을 참고하는 게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다른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맥락을 호도한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다만 1,050,000원 중에 800,000원 지원을 요청하는데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800,000원을 책정했는지는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공.정: 그리고 별건 아닌데 보시면 맨 위부터 2020년 1학기라고 나와있다. 그냥 작년 꺼 복붙하신 것 같다.

총: 제가 작년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작년에 인수인계 받은 자료를 활용한 것일수도 있고 양식만 활용한 것일수도 있다.

통공.정: 네 확인했다.

인문.정: 근데 인문대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애초에 저희가 양식 자체를 공지했기 때문에 왜 작년 양식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한 양식을 저희가 또 한번 요청하는 것은 기존 저희가 공지한 양식에 맞춰서 쓴 동아리와 달리 그들에게 또 다른 자료를 또 요청하는 것은 저희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문대학은 양식자체를 작년, 제작년걸로 쓴 단체들은 전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은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과.정: 사과대도 인문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지금 아마농구는 20년도 1학기 양식이고 매치포인트는 19년도 2학기 양식인데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지한 양식과 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20년도 양식을 사용해서 가져온 것은 아까 댄소시오가 기간 지나서 신청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총: 참 애매한 것 같다. 인문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기재한 동아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수도 있고 학생회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해야한다 라는 의견도 공감이 되고 한편으로는 예산자치제가 보다 많은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건데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태클을 걸어야 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충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년도 오기재와 관련된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달라.

자연.비: 자연대 말씀드리겠다. 저는 년도를 잘못 기재한 것 과 같은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올해 배부된 양식과 크게 어떤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양식 년도 기재를 잘못된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농구청룡같은 경우에는 왜 2020년 계획을

여기도 작년에 개최된 대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니 참고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 부분을 굳이 2020년 대회로 했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저희가 판단하기 좀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획을 작년에 개최된 대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했을 뿐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문.정: 혹시 인문대학 저희 의견에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만 다시 얘기해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중운위에서 공지한 양식에 맞춰서 썼고 그 안에서 일정상의 오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정에 대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양식 자체가 2020년 양식이기 때문에 63대 중앙운영위원회가 공지한 양식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그 외에 일정이 달라서 반대한다 그런 골자는 아니다.

총: 대표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년도 오기재는 사소한 건데 왜 그러냐, 이제 단체의 제출한 의도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봐주면 한도끝도없다 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다.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부총이다.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문대와 사과대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예산자치제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양식을 작년도, 제작년도 양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양식을 잘못 써서 제출하는 것은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봐야하는 문제이나 다른 관점에서는 일단 예산자치제 시행에 가장 큰 목적은 학생활동의 증진이고 그 증진을 위해서 지금 서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자치의 특성을 감안해서 유하게 평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인문.정: 일단 인문대학 말씀드리면 일단은 의결로 각 단과대별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 년도 오기재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걸 년도오기가 아니라 양식의 미사용이라고 저희는 판단한다. 양식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했다.

사과.정: 사과대도 년도오기재가 아니라 양식 부적격으로 판단했고 저도 논의를 통해서 하는게 아니라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 한다.

총: 서로 협의점을 찾으면 좋으니 논의를 진행 했는데 말씀해주신대로 의결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되니까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다음으로는 마켓팅연구회이다. 일단 양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자면 예산자치제에 신청한 내역이 상품이다. 이 상품 금액을 지원을 해야하냐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같은 경우는 예산자치제가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근데 상품을 배부하는데 사용하는 비용같은 경우는 예산자치제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난다고 판단한다.

부총: 네 부총이고 여기서 상품을 지급하는 대상이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강연에 참여한 강연자고 두 번째는 발표한 부원인데 전자인 경우에는 상품 지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섭외 비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후자는 단순상품 지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총: 또한 더불어서 저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내역정도는 함께 기재가 되어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 두루뭉술하게 10,000원 정도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자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또한 추가자료를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의결을 진행할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동아리같은 경우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이 필요한 경우는 요청을 하기로 논의된 바 있어서 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같은 경우는 우선 섭외비에 대한 비용은 예산자치제로 진행하는 것이 맞으나 상품같은 경우에

는 예산자치제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면 이라는 대면이라는 전제조건 때문에 300,000원의 예산을 신청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활동에 대한 계획이 만나와 있어서 계획서와 더불어 있어서 전체적인 상품의 금액도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총: 네 경경대 회장님께서서는 상품 내역과 더불어 있어서 이제 오프라인 활동시의 활동계획도 추가자료로 요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확인이 된다. 맞는지?

통공.정: 공대는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섭외비용은 차라리 섭외비용으로 금액으로 명시를 하고 상품은 저희는 다 반대를 하고 추가자료요청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총: 제가봤을 때, 보답으로 디퓨저를 드렸다고 라고 기재가 되어있다. 이 보답을 섭외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도 의견이 갈릴 것 같다. 저희가 지원 서류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섭외이다 아니다로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인문.정: 그래서 저희 인문대학은 아까 경경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활동계획서랑 구체적인 내역서를 좀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도 인문대 회장님 말씀하신거에 동의한다.

사과.부: 사과대도 활동지원 목적에서 상품이 지원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만 더 확인하고 싶다.

총: 네 우선 다수의 대표자분들께서 추가자료 요청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또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심리학과 소모임 흑솔이라는 단체 자료 검토하도록 하겠다. 연습실 이용비용, 그리고 녹음실 이용비용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해주셨고 이에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이 예산자치제 신청금액을 30,000원을 빼서 60,000원을 표기해주셨다. 얼마를 드려야할지 좀 파악이 안되는데 이 부분도 추가자료 요청을 할지 아니면 기각을 해야 하는지?

부총: 저는 추가자료를 요청해야한다고 보는게 최종금액 신청뿐만 아니라 예산안에서도 이게 평일과 주말의 녹음실 비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예산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내용 동의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자연.비: 자연대 추가자료 요청에 동의한다.

사범.부: 사범대도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도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도 동의한다.

총: 네 다음으로 흑룡 이라는 단체의 자료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예산자치제 제 4조 3항에 근거해서 예산자치제 지원금액의 20%가 안넘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다만 예산자치제 신청 금액이 1,660,000원이다. 금액이 좀 크다보니 다들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다. 네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네 20%가 1,647,000원이다. 그래서 1,660,000원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1,647,402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에서도 20%까지 지원이 불가능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 그냥 지원 자체를 기각시킬지 아니면 해당내용을 재안내하고 예산안을 재편성해달라는 요청을 드릴지 기타 추가의견도 괜찮으니까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 의견내고싶은게 아까 스포츠 모임같은 경우에는 대회참가비랑 시설대관료가 횡수에 따라서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거를 100% 다 예산자치제라고 받아준다면 금액이 되게 그런 부분으로만 쓸릴 것 같아서 대회비의 얼마를 지원한다거나 대관비의 얼마정도만 지원해준다 이렇게 갖춰져야

하지 않나 싶다.

부총: 부총이고 추가로 요청해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지출예산안에 보면 체육관 사용에 대한 총 비용. 다시 말씀드리겠다. 지금 체육관 일자에 따라서 사용 장소가 모두 다른데 사유를 추측할 수는 있으나 제출하는 쪽에서도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복수사용하는 체육관의 경우는 물론 3으로 나누면 하루당 100,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루 사용에 얼마가 드는지 특히 몇 시간을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저 자료를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인문대학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미식축구동아리 예산안을 아까 검토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시간당 대여비용이 있고 거기서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기재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기준이 없어서 그 부분은 추가요청을 하면 될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작년에 중운위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중운위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을 딱 채우는 금액같은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가 약간 궁금하다. 약간 지금 8,200,000원 중에 20%를 딱 채우면 거의 1/8정도이다. 그래서 약간 예산지원 범위가 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총: 딱 채운 경우가 없었다.

사범.부: 사범대 발언하겠다. 너무 딱 채운 것 같으니까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제출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근데 의문이 있는 게 어쨌든 회칙에 20%라는 금액이 나와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금액 안에서면 20%에 딱 채워서 낸다면 그거를 저희가 회칙 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예산이 과도하다 해서 막을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든다. 그래서 혹시 대표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부총: 저는 회칙에 명시된 범위까지는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차원에서 액수에 대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의 계산을 잘못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다시 재예산 편성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경경대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사범.부: 사범대도 경경대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도 동의한다.

총: 그럼 정리를 하자면 대관 내역에 대해서도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예산자치제 제 4조 3항에 근거해서 20%의 금액은 이것이니 이것에 맞게 예산을 재편성해달라 라는 내용도 함께 첨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학과 동아리 댄소시오 라는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는 저희 총학생회 공식 이메일로 총학생회 공식 이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0시 1분에 제출하였다. 그러니까 1분을 지각하였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 까지 하나하나 다 봐드리면 끝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좀 안타깝긴 한데 원칙은 원칙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네 사실 이것은 사실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의결을 진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표자분들 의견을 여쭙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지원서류 제출일자를 넘겼기 때문에 중운위가 따로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총: 네 알겠다. 그러면 댄소시오는 지원기한 부적격으로 지원 자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말씀해달라.

인문.정: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보낸 시간은 정시인데 받은 시간은 1분이라는 시간일 수도 있다.

총: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좀 봐드리기에는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

까 싶다. 지원하는 입장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는지?

인문.정: 저희의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

총: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통공.정: 그거 그냥 과제 낼 때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해도 안 봐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

총: 네 알겠다 그러면 러버쉴단체부터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들 혹시 생각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신지? 있는지? 경경대 회장님 동의하신 것 같은데?

경경.정: 네 경경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총: 네 그러면 2분만 있다가 55분에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러버쉴의 예산자치제 금액인 188,000원을 지원한다.'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채팅창을 통해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네 반대하시거나 기권하시는 단위는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네 참석단위 11단위 찬성 11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로 가결되었음을 알린다. 네 다음으로 매치포인트에 대한 자료검토 결과는 추가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대한 의결 진행하고 추가자료 요청할 단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근데 총학생회장님 매치포인트는 양식 자체가 2019년도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추가자료 요청하는 건지?

총: 그러면 19년도, 20년도라고 기재가 되어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할지 아니면 논의를 하고 의결을 진행할지?

인문.정: 다른 것 논의하고 진행해도 될 것 같다.

총: 다른 것 의결하고 진행하는 게 좋으신지?

인문.정: 그게 좋을 것 같다.

총: 네 그러면 매치포인트는 의결이 진행이 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DOT 단체는 개인별 연습비용 제외된 금액만 지원을 하자고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한다. 따라서 의결명은 다음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명	'러버쉴'에 예산자치제 신청 금액인 188,000원을 지원한다.						
참석인원	11	찬성	11	반대	0	기권	0

네 다음으로는 미식축구부도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자라고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한다. 의결이 모두 마무리가 된 후 한꺼번에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정치국제학과 소모임 레볼에 대한 자료검토 결과도 추가자료 요청이었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다. 네 사과대 학생회내 TFT에 해당하는 방구석TFT에 대한 의결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명	'DOT'에 예산자치제 신청 금액 중 팀별 연습에 해당하는 연습실 비용 441,000원을 지원한다.						
참석인원	11	찬성	11	반대	0	기권	0

총: 네 아마농구청룡에 대한 자료도 양식 부적격인지 아니면 년도 오기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 매치포인트와 함께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마케팅연구회는 상품내역과 활동계획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하자 라고 말씀해주셨고 심리학과 소모임 흑술 단체 또한 정확한 그리고 자세한 금액을 기재해달라 라는 추가내용을 요청하겠다. 흑룡이라는 단체도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게 예산안을 재편성해달라는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다. 네 우선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단체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의결명	'레볼', '미식축구부', '마케팅 연구회', '흑술', '흑룡'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참석인원	12	찬성	12	반대	0	기권	0

*참석인원 변동의 경우, 약학대학에서 오류로 상기된 두 개의 투표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름.

네 지금 참석단위와 의결 정족수가 맞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단위는 다시한번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반대하시는 단위도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지금 의결을 취합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3분정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다.

부총: 네 잠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 러버쉴이랑 DOT에 해당하는 투표에 약대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약대 회장님께서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총: 네 참석을 하셨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므로 반영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러버쉴은 참석단위가 12단위이지만 찬성 11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로 가결이 되었고 DOT도 마찬가지이다. DOT 이후의 의결은 12단위 참석해주셨고 찬성 12단위 모두 가결되었음을 알린다.

부총: 네 저희 의결사항을 공고해야하기 때문에 공식 의결은 진행상의 오류로 약대가 처음 두 개의 의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방금 약대에서 찬성을 표해주신 바는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다.

총: 네 그러면 논의 안건 1번 마지막으로 아마농구청롱과 매치포인트에서 제출해주신 서류에 대한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년도를 잘못 기재한 것이 양식 부적격 사유로 지원철회가 된다는 입장도 있으셨고 아닌 입장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근데 총학생회장님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건 년도를 잘못 썼기 때문에 양식 부적격이 아니라 애초에 주어진 양식을 안 썼기 때문에 양식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총: 아 년도를 어긴 것이 아니라 양식 자체를 잘못 쓴 것 이라는 것인지? 아 죄송하다.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다.

부총: 네 그래서 아무튼 방금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은 양식 미제출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년도 오기재 정도로 허용의 범위를 넓힐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총: 네 저도 2020년에 배포된 양식을 사용을 했지만 위에 표기된 숫자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최초로 2020년도에 배포된 양식을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드린 것이고 관련된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이야기할것이 있는데 아까 저는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이 경우를 허용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 허용이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한 의결을 진행을 하고 허용이 안되면 의결을 진행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 아까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계속 반복되는 논의를 되풀이하는것보다는 빨리 의결을 진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총: 네 제 기억으로는 다수의 대표자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시고싶은 말씀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 논의 시간을 드린 것이고 다들 논의 시간이 더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1차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부총: 죄송합니다만 제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전에 댄소시오를 제출기한 미준수로 기각을 시켰다. 그래서 댄소시오를 기각시킨 것을 원칙을 준수하는 최소의 사례로 보면 그 작년도와 제작년도 양식을 사용한 것도 동일한 실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사과부: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위 두 단체같은 경우에도 따로 진행없이 따로 의결 진행없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인지?

부총: 아 표결은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댄소시오를 기각시킨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사과.부: 네 감사하다.

총: 네 그러면 의결명은 다음과 같이 하겠다. '아마농구청롱, 매치포인트가 제출한 서류는 양식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결명으로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명	아마농구청롱, 매치포인트가 제출한 서류는 양식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참석인원	12	찬성	7	반대	0	기권	5

총: 네 예산자치제의 지원서류 검토와 관련된 논의안건 중 추가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해주시기 바란다. 추가자료 요청 기한은 다음주 중운위 전으로 하겠다. 그리고 차기 중운위 회의 때 나머지 단체에 대한 자료검토 하도록 하겠다. 네 없으시면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겠다.

2. 2021-1학기 전학대회 회칙 개정 논의

총: 일전에 의결된 바와 같이 이번학기 전학대회는 5/17(월)에 진행이 된다. 따라서 중운위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한다. 따라서 논의안건으로 상정을 하였고 총학생회 회칙을 보시면 학생총회 소집이라던지 아니면 총학생회장 이라는 단어를 해석의 이중성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단어 들도 개정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개정이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하여 차기 중운위 회의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학기 개정은 총학생회 회칙만 개정을 하도록 하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은 2학기에 개정하도록 하겠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적용은 매년 11월 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일정 공고까지 포함을 한다면 10월 중순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1학기에 굳이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총학생회 회칙중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총학생회 회칙 위주로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혹시 오늘 중운위 회의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개정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대표자분들은 차기 중운위 회의에 꼭 준비를 하시고 참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과대 질의 있는데 이번 전학대회에서 학생회칙만 개정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은...?

총: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학생회칙이랑 선거시행세칙 중에 회칙만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중감위 회칙 개정안도 중운위 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금일 중감위원장님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5/10에 중운위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듣기를 희망하셨다. 다만 5/10은 전학대회 전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 라고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5/7(금)에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서 중감위 회칙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5/7 전에 중운위 분들의 중감위 회칙 개정안 내용을 취합하여 중감위원장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또한 5/7에 임시회의를 열었을 때 참석이 가능한지도 제가 회의가 끝나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학생회 회칙같은 경우는 차기 중운위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알겠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두가지의 게시물을 제작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중감위에 전달해드릴 중감위 회칙 개정 내용을 하나 제작을 하고 두 번째로 5/7 임시회의 소집과 관련된 투표 올리도록 하겠다. 대표자분들께서는 필히 차기 중운위원회의때 총학생회 회칙에 대해서 개정 내용을 반드시 가져와주시기 바라고 질의사항 없으시면 기타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정말 죄송하다.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빠르게 두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다. 일단 지난번에 학생총회에서 5/3~7에 학생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단 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운위에서 안이뤄진 것 같아서 학우분들은 혹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보고 두 번째같은 경우는 학생 경비에 관련해서 혹시 다른 단과대 대표자님이 행정실에 들어온 바가 있는지 궁금하다. 인문대학같은 경우는 예산처로 받은 바가 없다고 똑같은 동일한 답변이 저희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왔다. 그래서 혹시 다른 단과대는 어떤지 궁금하다.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네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기타안건에서 말씀해드리려고 했다. 우선 학생총회가 무산이 되고 자유토의가 진행이 되면서 투표가 진행이 된 것이 4가지가 있다. 그 중 마지막 투표 안건으로 5/3~7까지 학생총회를 기획하라 라는 내용이었다. 5/7이라는 날짜에 학생총회를 소집을 하려면 내일 당장 소집 공고가 게시가 되어야 한다. 총학생회 회칙 제 13조 2항 학생총회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10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는 회칙에 근거해서 5/7에 진행하려면 내일 게시를 해야하고 총학생회장의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총학생회와 단과대 차원에서의 홍보 방안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총회 소집일을 5/10로 선정을 하고 회칙에 맞게 4/30에 소집공고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제 소집공고가 올라 갈 예정인 4/30까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는 홍보방식과 홍보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구축을 하고 소집공고가 올라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홍보물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총회 소집요건을 충족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이에 대한 중운위분들의 의견 여쭙도록 하겠다.

인문.정: 제가 이해가 4/30에 총학생회장님이 공고를 올리고 그 전까지 단과대는 학생총회 홍보에 필요한 각 단과대에서 실시할 홍보를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지?

총: 네 맞다.

사과.부: 근데 사과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전학대회 일정을 12일에 잡았을 때 많은 중감위원 분들이 10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총학생회장단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전학대회를 준비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일에 학생총회를 진행을 하면 따로 중운위 회의 없이 전학대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총: 만약에 10일이 학생총회 소집일로 선정이 된다면 반드시 그주에는 임시회의 소집을 해야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중운위 분들의 양해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운위 분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사과.부: 네 알겠다.

부총: 아니면 다른 날짜를 제안해주시면 된다.

총: 5/10로 제안을 드린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소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10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사실 11,12,13,14일에 진행을 해도 되지만 사과대 부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신대로 학생총회가 끝이 난 후에 전학대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기한과 학우분들과의 약속을 최대한 빠르게 이행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5/10이라는 일정을 잡게 되었다.

사과.부: 저도 학생총회가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 동의하고 확인했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5/3~7로 일단 학우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다. 그래서 약간의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10일도 저는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 10일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공고를 올린다면 10일로 해서 명확히 작성해주셔서 좀 학우분들께 양해를 구하는게 어떨까 싶다. 어쨌든 저희가 학우분들이 표결로 해주신 의견 자체를 어쨌든간의 약간의 일정 자체를 쪽 미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양해 정도를 같이 기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총: 네 해당 내용도 동의를 하고 학우분들께서는 5/7까지 이행을 하라는 의무를 총학생회장단에게 주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대로 소집 공고와 왜 소집을 10일로 하게 됐는지 그 배경설명도 함께 첨부할 예정이었다. 다수의 학우분들께서 저희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의 학생총회 소집의 책임감을 다시한번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학생총회는 보다 책임감있게 준비를 해야하고 소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총학생회장단도 학생총회 소집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까 각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도 좀 참신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란다. 기타안건 두 번째이다. 현재 장학TF를 결성을 해야한다. 장학TF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성적장학금 10%가 성적우수자에 한해서 장학금이 수여가 되고 있다. 이 장학금의 파이를 좀 줄이고 그 줄어든 파이를 다른 명목으로 변경을 하자 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오갔던걸로 기억을 하고 어떻게 장학금 명목을 변경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TF를 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장학금 TF와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네 장학 TF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신지?

인문.정: 궁금한게 서면으로 알려주실것인지?

총: 네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 네 서면으로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장학TF를 구성하면서 학교에서 제안하는 사항의 요지는 성적장학금 감축분을 소득분위 장학금과 일취월장 등 학업 장려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안건으로 일전에 학생대표자대상 성평등교육의 날짜를 13, 14일 중 어느 날짜에 하는 것이 좋겠냐에 대한 단위별 의견을 수합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확정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단위별로 선호 날짜를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통공.정: 공대는 13일 목요일 선호한다.

경경.정: 경경대도 13일 목요일 선호한다.

간호.부: 간호대도 13일 목요일 선호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는 14일 금요일 선호한다.

인문.정: 인문대 14일 선호한다.

사회.부: 사회과학대학 13일 목요일 선호한다.

자연.비: 자연대 13일 선호한다.

사범.부: 사범대 13일 선호한다.

부총: 네 13일이 이미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13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감사하다.

경경.정: 경경대 이전 인문대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도 되는지?

총: 된다.

경경.정: 네 저희도 교학지원팀에 여쭙 봤는데 우선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이랑 교학지원팀과 논의된 이야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게 저희가 일전에도 회의 할 때 여쭙봤던 것이 기획처에서 예산안을 감축한 다음에 그 예산안에서 학생회비 운영계획을 주라고 한것인지 학생자치비를 감축해서 기획처에서 학생회비를 운영비를 감축해서 준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쭙봤는데 진행 방법에 있어서 교학지원팀에서는 애초에 운영비가 감축된 상태에서 나와서 학생자치비 자체도 함께 감축이 되었다 라고 해서 이부분 기획처랑 말이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인문.정: 저희도 계획을 제출했냐고 여쭙 봤는데 근데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책정해서 배정해줬기 때문에 경경대 회

장님과 동일한 답변을 들었다. 지금 아예 말이 두 부서가 서로 안맞는 상황이다. 혹시 다른 단과대도 그런지?

총: 일단은 교학지원팀 예산뿐만 아니라 등심위에 들어간 학생위원으로서 모든 예산이 감축되었다는 것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기획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셔도 다 아실 것이다. 근데 말씀해주시는 것은 이제 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교학지원팀의 의견이 반영되었냐 안되었냐가 요지인 것 같은데 맞는지?

경경.정: 저희가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기획처랑 간담회때 이야기 했을 때 이번에 진행되니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감축이 될 예정이 있냐고 감축되지 않고 오히려 금액이 고정되어 내년에도 함께 갈 것이라고 전달을 받았던 상황이라 예산이 감축되어 나왔다는 것은 애초에 그 말과는 맞지 않지 않나 해서 이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총: 네 그러면 일단 말씀해주신대로 지난 겨울에 진행된 기획처간의 간담회에서 기획처장이 발언했던 내용과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팀과 교학지원팀과의 의견 충돌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 아닌지? 네 제가한번 기획처간의 간담회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고 예산팀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문.정: 아까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 교학지원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지팀에 요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일괄적으로 배분된다고 들어서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총: 혹시 실무자 분께서 예산팀에 직접 전화는 안 하셨는지? 교학지원팀의 실무자 분께서 예산팀에 직접 문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있을지?

경경.정: 추가로 인문대에 궁금한 게 아예 예산계획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지?

인문.정: 저희가 예산계획서까지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여쭈어봤냐면 교지팀에서 예상 예산안을 작성해서 예산팀에 주고 그걸 바탕으로 예산처에서 교지팀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교지팀이 아는 바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달한 바가 없고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책정해서 배정했고 행정실에서 예산을 짜서 줬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아 계속 의문이 들어 여쭙보는 것이다.

경경.정: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예산은 금액적으로는 나온 상태였고 예산 운영에 관련된 계획은 교학지원팀에서 짜서 올려보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문제가 됐던 사항은 선후관계가 전달받았던 거랑 다른 사항이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문.정: 아니면 저희도 한 번 저희 교지팀에 다시 여쭙보도록 하겠다. 저희 교지팀이 코로나 때문에 카톡으로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한 번 더 여쭙보겠다.

총: 인문대 회장님 문의하시고 그 결과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수합해서 문의를 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먼저 문의해주셔도 괜찮다. 저희 수요일에 방문할거라 약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경대에서 이아기한 부분 먼저 해주셔도 괜찮다.

총: 우선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예산계획서를 수합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것인지?

인문.정: 네. 저희는 그냥 예산처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배정받았다고만 들어서 예산계획서가 오간 여부 자체는 들을 수 없었다. 그 부분을 교지팀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다.

총: 그럼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은 예산계획서의 수합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거고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은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한 것이 아닌가?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경경.정: 선후관계가 주된 게 아니라 감축됐을 때 자치비를 유지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선후관계 파악을 해야한다고 했던 것이다.

총: 알겠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예산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개인톡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총: 추가의견 없으시면 중앙운영위원회 20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통공.정: 공대 할말있다. 단운위 회의에서 나온 의견인데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녹지에 대한 내용인데, 요지는 등록금 고지서 내 기타납입금 항목에 녹지편집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기를 요청한다. 녹지에서 하는 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녹지비에 대한 회계내역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미 낸 녹지비를 환불 가능한 지 여부까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단운위

에서 의견이 2주 전부터 나왔었다. 해당 내용이 나온 이유로는 녹지비라고 적혀있어서 사람들은 어떤 교내의... 말이 잘 안떠오르는데 혼란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공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다른 단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 녹지 회계내역은 녹지 SNS에 업로드가 되거나 중감위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 녹지 회비의 환불권은 녹지에 연락하시면 환불을 해주실 것이다. 이는 학생회비 환불과 마찬가지로, 녹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환불을 해준다. 이는 배분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회비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녹지에게 있다.

통공.정: 그러면은 등록금 고지서에 어느정도, 오해가 없을만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중운위 의견이 어떤지 여쭙보고 싶다.

총: 우선 지금 등록금을 거둘 때 어떠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다는 기억 못 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지원팀 으로부터 기타납입금 선택 화면 캡처본을 받아서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럼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기 중운위 회의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총: 추가 의견 없으신지?

사과.부: 추가의견은아니고 조사위 관련 입장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총: 조사위의 경우는 아직 성평위에서 내용의, 저번에 보여드린 초안 이후에 새롭게 내용을 작성했는데 성평위에서 아직 피드백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완료 되는대로 전체톡에 올려서 전체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다.

사과.부: 네. 감사하다.

총: 추가 의견 없으시면 20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총학생회장에게 언제나 문의해주시기 바란다. 모두 고생 많으셨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